2026년 6월 7일 주일 1부 예배 신봉준 담임목사

영적세계를 보는 눈

(히11:1-3)

서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의 원리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삶의 원리가 있으며, 두 원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철저하게 살고, 잘하고 못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삶의 논리를 모르면 우리도 이 땅의 삶의 원리를 따라 가게 되며, 유대인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삶의 원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보이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영적 사실과 영적 축복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의 포인트와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1. 속기 쉬운 것

가. 눈에 보이는 잘 되는 것과 응답에 빠져서 착각하거나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앞에 서게 하옵소서(히11:38).

나. 잘 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현실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행19:20-21).

다.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는 것과 문제, 현실에 속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고 실상을 보게 하옵소서.

2.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가. 믿음을 선택할 때 오는 증거를 실상으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나라의 일로 이루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나. 눈앞에 응답이 아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숨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엡3:19-20).

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붙잡게 될 때,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결론: 교회의 사명은 이 땅의 재앙의 역사를 막고, 네피림 문화를 바꾸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사명임을 붙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네피림 문화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사실과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으며,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면 삶이 사실적으로 되어지고, 증거 있는 증인이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 살리는 절대 제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opyright ⓒ Hana presbyterian church for world evangelization